

# 검색창에 묻힌 경험들 사이에서...

사기를 의심하고 뭔가를 검색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장면이 있다. 검색어는 구체적이고, 마음은 조급하고, 결과는 지극히 영성하다. 피해 후기라고 나온 글은 감정이 과잉되었거나 너무 짧아서 단서를 주지 못하고, 블로그 글은 한참 읽고 나서야 광고인 걸 눈치챈다. "이거 사기인가요?" 같은 질문은 몇 년 전 글이고, 답변은 없다. 결국 창을 닫는다. 확인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, 괜히 더 불안해진다.

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팀이 있다. 2019년에 설립된 [먹튀위크](#)는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수집하고, 그것을 유의미한 흐름으로 정리하는 일을 한다. 이 회사는 스스로를 사기 검거자가 아니라 '판단 보조자'라고 말한다. 범인을 찾는 대신, 구조를 보여줄 것이라는 접근이다. 시작은 작았지만, 지금은 그들이 구축해둔 사례와 분석 틀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을 멈추게 만든다.

## 맥락 없는 정보는 판단을 방해한다

온라인에서 사기를 겪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고 생각한다. 그런데 그들이 놓친 건 대부분 '정보'가 아니라 '맥락'이다. 당연히 진짜처럼 보이는 문장, 자연스러운 응대, 유명 브랜드를 흉내 낸 페이지가 반복되다 보면, 정보만으로는 이상함을 설명할 수 없다. 이때 필요한 건 각 사례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구조화한 콘텐츠다. 먹튀위크는 바로 그 구간을 데이터화한다.

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방식, 의심스러운 말투 하나에 몇 가지 유사 사례를 엮어주는 구조, 같은 유입 경로를 통해 동일하게 피해가 발생한 시퀀스. 사용자는 이를 통해 정보가 아니라 장면을 이해한다. "이게 그 수법이다"가 아니라 "지금 이 상황이 전에 있던 그 흐름과 닮았다"는 감각으로 전환된다.

## 검증 플랫폼의 형식, 학습 도구의 성격

먹튀위크는 검증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교육 도구에 더 가깝다. 사용자에게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단정 짓기보다, 그 판단을 유보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 구조를 제공한다. 특정 시점에 "이 링크를 누르기 전에 멈출 수 있게" 만드는 것이다.

사례 중심 페이지뿐만 아니라, 유사 패턴 비교나 도메인 이동 흐름, 대화 스타일 분석 같은 기능은 단순히 제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는다. 정보 그 자체보다 정보 사이의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, 먹튀위크는 시기와 방식, 피해 양상이 반복되는 과정을 시간 단위로 정리하고, 그 흐름을 시각적으로 요약해낸다.

## 더치트 하위호환이 아니라, 다른 걸을 가진 보완 도구

많은 사용자들이 먹튀위크를 더치트의 하위버전처럼 오해하지만, 실질적으로 두 플랫폼의 기능은 다르다. 더치트가 계좌 기반의 검증과 신고에 집중한다면, 먹튀위크는 링크, 브랜드, 거래 방식 등 '접근의 수법'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. 무엇보다 먹튀위크는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는다. 단순히 판단의 힌트를 제공하고, 판단은 사용자가 직접 내리도록 한다.

이 점에서 먹튀위크는 신고 시스템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지형도에 가깝다.

## 기억되는 이름보다, 필요한 순간 떠오르는 시스템

먹튀위크라는 이름은 여전히 낯설고, 디자인도 투박하다. 하지만 이 플랫폼은 이름을 기억시키려 하지 않는다. 오히려 "뭔가 이상한데"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, 검색창에 우연히 걸리게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. 그건 브랜드 전략이 아니라, 기능의 본질이다.

먹튀위크는 빠르게 성장하거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, 필요한 때에 정확한 구조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스타트업이다.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, 어떤 상황에서든 '잠깐 멈추게 만드는'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키워간다.

사기를 피했다는 건 대부분 잊힌다.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 잠깐 들렀던 페이지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. 먹튀위크가 하려는 일은 그 잠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, 꾸준히 유지하는 일이다.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조용히 진행 중이다.